

예배 및 모임안내

2025-21 2025년 5월 25일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01	06. 08	06. 15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윤미경 자매	이예준 형제
성 경 봉 독	김정규 형제	윤미경 자매	이예준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브레멘지역 청년 연합 찬양예배 - 5월29일(목) 오후2시 한민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설교-한민교회, 기도회 인도-반석교회, 축도-연약교회)
4. 성찬예식 - 다음주일은 성찬예식으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5. 5월 생일 축하 - 오서진 자매, 김지혜 자매, 주돈혁 형제
6. 나눔의 시간 - 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함께(Euro)	
온라인헌금(5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 (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14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장래황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행 10 : 9 - 16(신p204) (Apostelgeschichte 10:9-16)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관계회복 - 편견을 버리라(II)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과 임시와 취직 준비생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백승민 자매의 갑상선 암 수술 이후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4. 브레멘지역 연합찬양제를 위해서(5월29일, 오후 2시, 한민예배당)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교만

성경이 경고하는 교만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자함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를 고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교만해져 처참하게 패가망신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총명함을 잃고 들판의 짐승과 같게 되었습니다(단4:28~33)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극이 가장 추운 이유는 지구가 공전할 때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면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해 얼어붙습니다. 심령이 차가워져서 남을 판단합니다. 가을 들판의 곡식을 생각해 봅시다. 알곡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쪽정이는 자신을 곳곳이 세웁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은 자만에 빠져 목을 뻗뻗이 세우고 허세를 부리며 거드름을 피웁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낮은 자의 자리를 겸손히 지키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예배자입니다.

성숙의 최고봉 /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나도 모르게 정해진 편견으로 관계나 영적 생활에 힘든 적이 있었나요?
2.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막은 적이 있었나요?